▣ 歐美, 中섬유제품 수입억제 움직임

- 2005 년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 수입급증 우려

○ 섬유대국인 중국은 2005 년 섬유무역자유화 일정에 맞추어 대대적인 증설투자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, 최근 미국· EU 등지에서 중국산을 겨냥한 수입억제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어 중국기업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음.

○ 자국산업 피해를 우려한 歐美업계는 세이프가드, 반덤핑, GSP 폐지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뿐만 아니라, 노동자보호 기준, 생태기준 설정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중국산 범람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, 섬유수출을 둘러 싼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임.

○ 2003 년도 중국의 섬유제품(직물, 의류) 수출액은 총 790 억 달러에 달했으며, 섬유제품은 전체 수출총액의 18%를 점유하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임.

○ 중국정부는 섬유무역자유화에 따라 섬유제품 수출이 2008 년도에 1 천~1 천 2 백억 달러, 세계시장 점유율 약 30%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 이에 따라 기술개발, 브랜드 확립 및 고가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 한편으로는 과당경쟁, 수출단가 폭락, 무역마찰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.

□ EU,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특혜관세(GSP) 폐지

○ EU 유럽위원회는 지난 10 월 20 일, 섬유쿼터폐지에 따른 중국산의 수입증가 억제를 위해 2005 년 7 월부터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GSP 혜택 폐지 방침을 확정 공표하였음.

○ GSP 제도에 졸업개념이 새로 도입되면 EU 시장점유율이 32%에 달하던 중국산 섬유제품은 더 이상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, 그 만큼 인도, 파키스탄 등 섬유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- 新 GSP 제도 : 섬유제품의 경우 시장점유율 12.5% 초과(일반 품목 15%)시 GSP 제도 졸업
- 관세율 인상 : GSP 수혜중단으로 중국산섬유류는 현행 평균 9%에서 12%로 관세율 인상
- 중국산의 EU 시장 점유율 : 32% (2003 년 중국섬유제품수출의 EU 비중 8%)

□ 美 섬유제조업계, 中 섬유제품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요청

○ 美 섬유제조업계는 지난 10 월 12 일,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했음. 부분적으로 쿼터 해제된 브래지어 등 품목의 '수입물량' 급증상황에 근거하여 발동된 2003 년 11 월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, 이번 세이프가드는 2005 년

섬유쿼터폐지에 따른 중국산 수입급증 '우려'에 근거하여 사전에 제소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음.

○ 특별세이프가드 제소 내용 : 대상 제품(10 분류, 16 개 품목)
- 남성용(성인,아동) 및 여성용(성인,아동) 면바지
- 남성용(성인,아동) 및 여성용(성인,어린이) 합성섬유바지
- 모직바지
- 남성용(성인,어린이) 및 여성용(성인,어린이) 면 닛트셔츠
- 남성용(성인,어린이) 및 여성용(성인,어린이) 합성섬유 닛트셔츠
- 非닛트셔츠(면 및 합성섬유)
- 언더웨어 (면 및 합성섬유)
- 면 셔츠
- 합성직물(단섬유)
- 면사

○ 제소품목의 수입액(2003 년 기준) : 19 억 6 천만 달러(중국의 對美섬유제품 수출액 142 억 1 천만불의 13.8%)

○ 발동여부 : 섬유협정실시위원회(CITI)에서 2005 년 1 월 하순까지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, 현재 美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발동 가능성이 높음.

□ 포스트쿼터 시대, 中섬유수출을 둘러싼 무역마찰 심화될 듯

○ 미국, 유럽을 위시한 주요 섬유수입국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중국산으로부터 자국산업을 지키기 위한 섬유업계의 로비가 거세게 일어 나고 있어,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물론이고, 노동자보호규정, 생태표준 설정, 환경보호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한 대항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며, 이를 둘러 싼 무역마찰의 격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.

○ 각종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억제 조치 전망

1)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(SSG) 발동 : 중국이 WTO 가입시 동의한 특별조항(중국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)에 의거, 수출 쿼터 철폐시점인 2005 년부터 3 년간(2008 년 말 까지) 각국은 중국산 수입급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'실질적인 피해' 발생시 수입증가율을 7.5% 범위 내로 묶어 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.

2) 반덤핑 조사 : 인도, 터키, 페루, 남미 등 국가가 잇달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 및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고, EU 도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을 포함한 수입제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3) 생태섬유표준 100 등 기술무역장벽 : 선진국들은 잇달아 일련의 '생태섬유제품 표준'을 공표하고 있음. 특히 EU 는 2003 년 9 월 11 일부터 22 종의 섬유원료용 염료사용을 금지하는 규정(2002/61/EU Order)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04 년 6 월 30 일 부터는 더욱 엄격한 조건의 염료사용 규정을 시행할 방침으로 있음.

4) 노동자보호 규정(SA8000) : 선진국, 특히 歐美의 정치인, 언론, 사회단체들은 섬유제품 수입상들에게 생산국에서의 아동고용 금지,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, 중국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공장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이 일고 있음.

□ 중국섬유업계의 우려

○ 최근 중국섬유업계에는 쿼터폐지에 대비, 대대적인 생산설비 확장과 창업 러쉬가 일고 있음. 2003 년의 경우, 섬유업체가 5 천여개 증가했으며, 2004 년 1/4 분기의 경우 섬유업종의 투자증가율은 전년 대비 144%에 달함. 이러한 투자과열, 생산능력 확대는 원자재 수입가격에도 영향을 미쳐, 면화 등 원자재의 내수시장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○ 중국은 2005 년도에 높은 가격경쟁력과 섬유산업집적기반을 토대로 수출확대의 호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한편으로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, 과당경쟁에 따른 중소형업체의 붕괴, 수입국과의 무역마찰 심화 등 역풍도 우려하고 있음.

○ 이 때문에 최저 수출가설정 등 자율규제, 자체브랜드 수출강화, 기술개발 등 건설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,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.

(문의처: 다렌무역관 이평복)